

과목명: 대학글쓰기

학과명: 사회복지학과

이름: 김경민

학번: 202211403

평: 1) 독자로 하여금 흥미를 갖도록 하는 표현이 인상적임 2) 논리적 전개와 상상력이 돋보임. 3) 다만 각주와 참고문헌 처리법을 다시 숙지할 필요가 있음. 4) 전반적으로 좋은 에세이라고 판단됨. 5) 이하 내용은 발표시 코멘트와 동일함.

제목: 기분 좋아지는 약이 있다면

1. 서론

행복이란 굉장히 당신의 곁에 쉽게 있으면서 없는 감정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 하곤 하죠.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을 만나거나 게임, 춤, 노래와 같은 유희와 술과 담배를 이용하곤 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약 하나를 섭취해서 기분이 좋아진다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 약이 약리적 부작용도 없고 쉽게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무조건 그 약을 먹고 싶어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약이 시중에 유통이 될 수 있다면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그 약을 사기를 간절히 바랄겁니다.

2. 본론

당신은 우울증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우울증, 즉 우울장애는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우울장애는 감정, 생각, 신체 상태, 그리고 행동 등에 변화를 일으키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진단해준 항우울제를 복용합니다. 항우울증에는 박장애, 각종 공포증, 야뇨증, 월경 전 불쾌장애뿐 아니라 당뇨병성 신경증이나 섬유근육통의 치료에도 사용합니다. 항우울제를 많이 복용할 시 항우울제의 종류에 따라 부작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부작용에는 졸음, 어지러움, 두통, 불면, 구토 및 설사, 불안 등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항우울제를 원하곤 합니다. 우울함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항우울제를 진단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중독 되곤 하죠. 제 생각에는 기분이 좋아지는 약이란 항우울제의 상위 호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분 좋아지는 약이 약리적 부작용이 없다고 해도 중독은 있어 시중에 유통하기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중독은 신체 증상으로서 중독과 정신적 의존증으로서 중독이 있는데 기분 좋아지는 약은 정신적 의존증으로서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적 의존증은 심리적 의존이 있어 계속 물질을 찾는 행동을 하고, 신체적 의존이 있어 복용을 중단하지 못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는 이 기분 좋아지는 약을 먹으면 마약과 같은 기분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약은 사용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다행감과 고양감을 줍니다. 기분이 붕 뜨고, 나른해지며 만사 걱정이 사라지는 경험을 보여줍니다. 이런 경험을 계속 겪고 싶어 사람들은 마약에 빠지고 맙니다. 이런 효과를 느끼게 해주는 약이라면 사

람들은 약을 항상 찾을 것이고 그 약을 사기 위해서 고군분투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분 좋음은 인위적이고 일시적인 반응이라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순간의 희열과 다행감을 극한까지 끌어올리지만, 한 순간의 쾌락이 많은 후폭풍을 가져옵니다. 그 후폭풍으로는 내성과 중독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담배와 술을 달고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용을 끊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고 없을 땐 불안하고 힘든 현상을 중독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많이 유통되기에 정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중독이 아니라고 인지를 못하는 것이죠.

행복은 특정 수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행복을 획득하고 소유하려는 움직임은 겪으며 행복은 귀중해지고 가치 있어집니다. 약물이 시장에 많이 유통되고 많이 팔린다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노력했던 요소들을 찾는 빈도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먹었던 매운 음식이나 게임과 같은 유희, 극단적으로는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의 우울증 치료가 없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신과에서 주는 약보다 기분 좋아지는 약을 찾을 겁니다. 결국 행복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 효능은 점점 줄어듭니다. 행복하기 위한 노력은 부질 없는 것이 되버립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필요가 없다면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한 여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정신과의사와 상담사의 직업이 없어지고, 오락과 게임 등의 유희, 맛있는 음식을 찾는 비중이 줄어들고, 직업의 세계와 시장 경제의 많은 피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흥미롭게 봤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상은 '복제 액체'에 관한 영상이었는데, 이 액체를 사용하면 여러가지 물건을 복제 시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액체는 시장에 자율적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액체를 사용해 많은 물질을 복제하고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더이상 물건을 사지 않았고 기업들은 비상사태에 걸렸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기업들은 이 액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액체가 유해하지 않다고 해서 사람들은 액체를 사용을 하지 않고 기어코 액체의 유통이 금지시켜 사회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기분이 좋아지는 약도 이 액체와 같이 사회 이슈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약이 유용하고 부작용이 없다고해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논란이 여론에 퍼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말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기면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믿기에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웃긴 상황 아닌가요? 좋다고 사용할 때는 어느선가 사라지고 거짓과 의혹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니 남이 이익보고 자신이 손해를 보는 짓을 쉽게 봐주질 못하죠. 이 약도 그렇지 않을까요?

약을 먹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면 사회복지사나 상담사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직업 생태계에서 제일 인기 많고 없어지지 않을 직업이 약사일 것입니다. 약국제조사도 물론 뜨는 직업 중 하나이겠죠. 지금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기분 좋아지는 약이 빠른 시일내로 발명된다면 저와 같은 정신복지사회복지사를 꿈꾸는 학생들, 상담사를 꿈꾸는 심리학과 학생들과 정신과 의사, 상담사들은 모두 실업자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물론 이런 심리관련된 직업 말고도 사람들이 모두 즐겁고 행복하다면 인간관계가 중요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 덕분에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서는 약을 살 돈을 벌기 위한 비즈니스적 관계만이 남을 것입니다. 돈을 벌기위해서 회사에서 일하고 남은 시간은 약을 사 먹으며 회사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 것입니다.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며 이미 약을 먹어서 기분이 좋기에 친구나 애인이 잘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질 확률이 높아지죠. 하지만 모두가 행복하다면 오히려 인간관계가 더 완화될 것이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행

복하다면 싸움도 없을 것이고 모두가 행복할 것이라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싸움은 연장전입니다. 기분 좋아지는 약의 효과는 일시적이죠. 싸움 중 기분 좋아지는 약을 먹고 괜찮아지고 또 다시 약을 먹고 괜찮아지면 마지막으로 약이 남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전에 쌓였던 감정들이 축적되서 더 큰 싸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기분 좋아지는 약이 인간관계를 더 좋게 해줄까요? 저는 더 악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약이 있으면 당연히 좋은 일만 있을 거 같죠? 실제로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회문제 또 자신의 생활 문제까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저는 기분 좋아지는 약의 자율적인 유통을 금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유통해야 합니다. 물론 사용자가 약을 많이 복용하지 않도록 항상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될 거 같기 때문입니다.¹

¹ 행복을 약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행복을 약으로 얻을 수 있나요?

우울장애 - 지식백과

중독 - 지식백과